

## 한국, 日書수입 계속 늘고 있다

— 日 出版주간지 「新文化」 특집보도 —

新文化에 실린 72년부터 81년까지의 10년간 日本출판물의 對韓수출통계에 의하면 72년도의 잡지와 일반도서 수출총액은 5억7천3백93만3천엔(韓貨 약 17억원)이던 것이 81년도에는 18억2천6백14만2천엔(韓貨 약 55억원)으로 10년동안 2백3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서적의 수입은 특히 지난 5년동안 크게 두드러져 지난해의 수입량은 77년도의 7억9천8백89만3천엔보다 1백30%나 늘어났다. 이 통계에는 수출 1건당 1천달러 미만의 우편에 의한 수출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한국의 실질적인 日書수입은 20억엔(韓貨 60억원) 이상일 것으로 이 신문은 추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81년도 日書의 對美수출량 70억1천6백58만엔과 對濠洲수출량 38억2천43만엔에 뒤진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의 경우 日語도서의 수출량이 아니라 미국과 濠洲가 일본인쇄소에 자기들의 출판을 의뢰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對韓수출량중에는 洋書의 리프린트물이 2억엔어치가 포함돼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日書여서 日書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라는 것이다.

日書수입이 꾸준히 늘는 것은 양국언어가 유사하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일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공보부가 집계한 外書수입허가 통계에서도 나타나 있다. 문공부의 이 통계는 日書와 歐美도서의 두가지를 나뉘어 있는데 72년도 일반도서수입량은 日書 26만7천1백45부 歐美도서 19만7천3백64부로 엇비슷했던 것이 81년에는 日書 1백4만1천2백90권에 歐美도서 50만5천7백17권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난다. 이것은 최근의 歐美語인구신장을 고려할 때 엄청난 증가현상이다.

비록 日本語세대는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들어 日語가 제 2외국어로 채택됨에 따라 젊은세대들중에 새로이 日語전공자가 늘어나고 있다. 日語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자를 통해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어 歐美語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新文化는 한국인의 日書선호가 문화의 유사성에도 원인이 있다는 분석을 곁들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어 工業化에서 활로를 찾아야하는등

입장이 비슷하여 도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공부가 집계한 한글도서의 수출량은 80년도에 28만9천1백60권에 60만9천7백58달러(韓貨 4억5천만원)였던 것이 81년에는 29만51권으로 권수는 다소 늘었지만 금액으로는 36만8천3백41달러(韓貨 2억6천만원)로 더 줄어들었다. 이 책들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南美등 70여개국에 산재해 있는 해외동포들을 상대로한 것인데 전부 함해봤자 日書수입량의 5%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한국서적 수출량의 70%가 미국을 대상으로한 것이어서 對日도서무역의 逆調은 1백대1도 넘는 셈이다.

한 출판계인사는 「도서의 수출은 국적의 신장 단계를 넘어 문화의 우월성을 확보한 다음에 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의서의 수출입균형보다는 수입의서의 성격에 더욱 신경을 써 양질의 의서를 들여와 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한다.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로 성장한  
폐사는 항상 여러분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쿠폰 대행기관
- 단행본 및 학술잡지
- 구미서적 수입판매

科學書籍센터

SCIENCE PUBLICATIONS CENTER

서울特別市 鍾路区 鍾路1街21番地 光化門私書函333号

電話 (723)6719 (725)0934